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방안 필요

전북재정포럼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분석·체계적 대응 위해

현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한 분석 및 전라북도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전북재정포럼이 19일 익산에서 열렸다.

지난 10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22년까지 1~2단계로 시행되는 재정분권 추진안이 발표되었다.

국제, 지방세 구조개선으로 지자체는 8.5조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보여 지방재정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이양규모가 축소되고,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대책이 없어 지자체의 기대에는 미흡한 내용으로,

이에 대한 보전과 대응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그동안, 전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지방소비세 특성상 재정력이 높은 지자체에 재원이 과도하게 편중되어, 지역 간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배분 가중치 조정 등 균형장치를 보완하도록 행안부 등 중앙에 건의하여 왔다.

포럼에 참석한 위원들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안에 대하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분석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유태현 남서울대 학교 교수는 "정부의 10월 30일자 발표된 재정분권 방안은 국제 지방세 구조개선 비중 축소, 지방교부세 감소분 미보전,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방안 미흡 등 출범 초기 제시했던 재정분권 목표를 낮추었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 해결을 위해 현행 지방소비세 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비수도권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다른 기준의 제안(수도권:광역시:도=1:2:4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영 도의원은 "중앙과 지방간의 수직적인 재정조정 문제 못지않게 지방간 수평적인 재정조정 역시 큰 문제인데, 현재의 정부안은 그 문제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확충과 지방정부간 재정적 불균형해소 없이는 진정한 자치분권은 이상향일 뿐이며, 각 지방정부의 의견수렴을 통해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며, 정부도 재정분권을 보다 균형잡힌 시각으로 접근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정분권이 새로운 불균형의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여러 포럼 위원분들이 제시한 방안들을 수렴하고,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에도 및 시군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공조하여 중앙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재정포럼'은 2008년부터 10년간 40회째를 이어오면서 지방재정 및 세제분야의 현안과도 대응방안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스마트냉장고·TV로 지방세 납부 가능

행안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내년부터 추진

지방세 납부서비스 '위택스'와 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이 사용하는 세무행정시스템이 전면 개편된다. 2005년 구축 이후 약 13년만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기존의 지방세 재구축하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자치단체별로 분산 운영 중인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전국 통합형 클라우드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반영해 현행 시스템을 통합하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1668억원을 투입해 현행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2022년부터 서비스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편리한 납세여무를 돕는 납세자별·지역별 맞춤형서비스가 제공돼 국민 납세편의가 강화된다. 복잡한 지방세 신고서식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자동채움 서비스가 도입되고 스마트냉장고, TV 등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한 대화형 상담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우리지역 주민에게 유용한 새로운 세정정보를 알려주는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와 세무대리인 전용 페이지

등 납세자별 맞춤형 콘텐츠가 제공된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무행정을 위한 지능형 업무 환경 제공으로 자치단체 세무행정 역량이 강화된다. 전자서고 구축으로 종이없는(paperless) 지방세 업무환경이 제공된다. 사무실과 과세물권 현장을 오가며 처리해 오던 과사업무가 스마트기기로 현장에서 조사가 완료된다. 지역 간 칸막이 제거로 주소지가 아니어도 신속한 세무상담이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통합된 지방세정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첨단세정을 구현한다. 체납노키터링 등 첨단탈세에 대응하고 공간정보를 활용한 입체적 세원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행안부는 또 클라우드 기반 전국 통합형 지방세 기반(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간 세정격차 완화와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개별 운영되던 전국 세무행정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해 효율적 자원 공유로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간 세정격차도 줄인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세정업무 처리와 과학적 정책결정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국민에게는 보다 편리한 첨단 납세편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새만금국제공항 예타조사 면제를”

군산상의, 조기 사업 추진 촉구

군산상공회의소(회장 김동수)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와 함께 조기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19일 군산상의는 국토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지 않으면 2023년 새만금 국제공항의 개항은 불가능하며 조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김제공항건설과 군산공항 확장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새만금 공항을 건립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과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제협력 거점인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과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30만 군산시민과 200만 전북 도민의 의지를 담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새롭게 출발... 새만금개발청 현판식. 새만금개발청 이전 기념 행사가 19일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개발청사에서 실시된 가운데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과 이형규 새만금민간위원장, 김광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김임준 군산시장, 김관영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이 현판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내년부터 청년들도 건강검진 받는다

내년부터 20~30대 취업준비생이나 가정주부 등도 국가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울증 조기 발견을 위해 40대 이상에만 해당하던 정신건강 검사도 청년층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

외래 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 719만명을 검진 대상에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1만 2834명, 지역가입자 세대원 246만7849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원 11만 3727명 등이 내년부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같은 20~30대라도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

자 세대주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게다가 2016년 전주시 20~30대 취업준비생 건강검진 결과, 고콜레스테롤 유병률 5.5%, 고중성지방·간기능 수치 유병률 각 13% 등 만성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나면서 조기 발견과 치료 필요성이 대두됐다.

복지부는 청년세대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40·50·60·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내년부터 20세와 30세에도 시행한다. /뉴시스

“새해 꿈은 함께 잘 사는 것”

문 대통령, 4만명에 신년 인사 담은 연하장 발송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내외 주요 인사, 국가유공자, 사회배려계층 등 4만명에게 신년 인사를 담은 2019년 연하장을 발송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보내는 연하장 메시지에서 “지난 해 우리의 꿈은 평화를 향했고, 새해의 꿈은 함께 잘 사는 것”이라며 “3·1독립운동으로부터 100년인 새해, 우리는 새로운 100년을 시작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내가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하다”며 “포용하며 나누는 새해 이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또 외국 주요 인사들에게는 지난해 평화를 향한 여정에 함께해 큰 힘이 됐다는 감사 인사를 담았다.

문 대통령은 “새해 대한민국의 꿈은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함께 잘 사는 것”이라며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이 되겠다”고 했다.

이번 연하장에는 QR코드와 홀로그램 영상용 도구를 더해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를 입체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영상에서 푸른 두루마기를 입은 문 대통령은 “국민 한 분 한 분 직접 뵈고 싶은 마음을 담아 새롭게 홀로그램으로 인사를 드린다”며 생생한 새해 인사를 전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